



서 성 배
(사)한국계육협회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회 2008년도 정기총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일부러 와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업계는 2006년 11월에서 2007년 2월에 걸쳐 발생했던 AI 후유증을 기폭제로 수급상 많은 어려움에 시달려 왔습니다.

거기에 사료가격 폭등과 유류대 상승이 계속되면서 생산원가는 치솟고 있으나, 불합리한 가격결정구조 때문에 우리 업계의 불황세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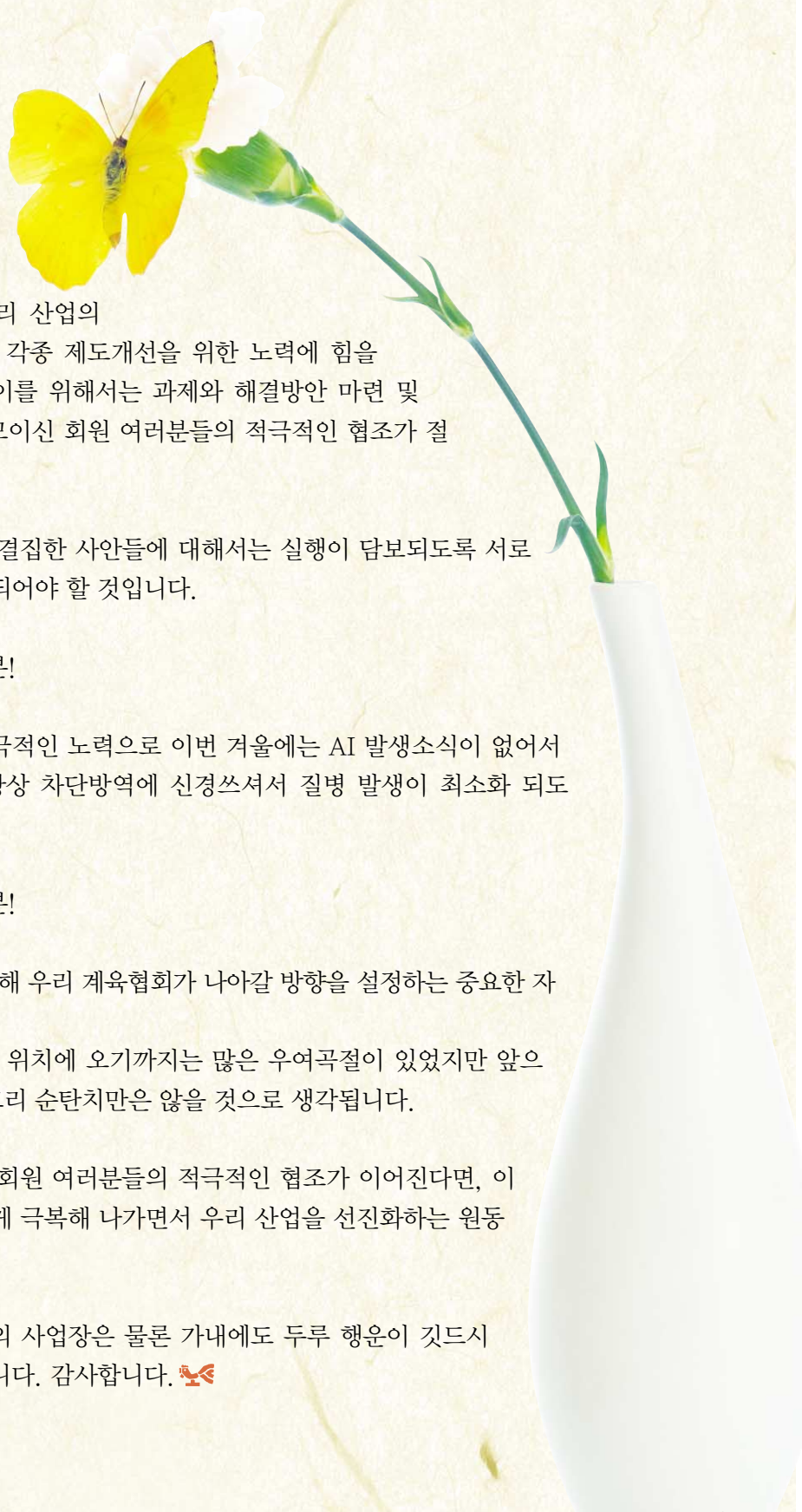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임의자조금 사업추진에 주력 회원사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으로써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닭고기 가격결정구조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조해 주신 회원사들과 정책당국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월 25일자로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선진화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지요?

우리 업계가 단결하여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선진국 벤치마킹 사례와 일치하는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리 산업의 발전에 실익이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제와 해결방안 마련 및 추진 노력 등에 여기 모이신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또한 우리가 의견을 결집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행이 담보되도록 서로 신뢰하는 풍토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번 겨울에는 AI 발생소식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항상 차단방역에 신경쓰셔서 질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올 한해 우리 계육협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업계가 지금 이 위치에 오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역시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 모이신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어진다면,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산업을 선진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의 사업장은 물론 가내에도 두루 행운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